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8년도 표어 ◎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고후 5:17)

◎ 생활지침 ◎

1. 경건
2. 사랑
3. 절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바자

새 예배당 건축 위한 열기 확산

접수 시작... 이번 주부터 자매교회 특산물 판매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바자의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해 바자에 판매될 물품 및 현금 접수를 시작된 지난 한 주 동안 사무국에는 기증품과 현금이 답지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 기간 중에 얻은 수익 전액을 현금하겠다는 성도들이 있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또한 타교회 성도들도 포함된 한남기 독실업인회(CBMC)에서 바자 소식을 듣고 우

리 교회 새 예배당 짓는 일에 쉴 달라며 현금을 보내오기도 했다(근거리 4면)

한편 이번 주부터 바자 기간까지 놓여온 자매교회의 특산물도 판매될 예정이다. 이는 성도들에게 각 지역 특산물 출하 시기에 맞춰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22일(화)부터는 영양 고추(근당 7,500원)와 우성마늘(접당 23,000원)을 교회당에서 판매한다.

서울교회 바자 발자취

- ▶ 1993년 11월 12일(금) ~ 13일(토): 청년부 주회 모음과 나눔의 장
- ▶ 1995년 6월 14일(수), 19일(월): 여전도회 주회 파키스탄·방글라데시·국내 놓여온 목회자를 위한 모음
- ▶ 1996년 5월 2일(수) ~ 3일(목):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모음과 나눔의 장
- ▶ 1996년 8월: 수재민을 위한 모음
- ▶ 1996년 10월 23일(수) ~ 24일(목): 교회 설립 제 5주년 기념 바자
- ▶ 1997년 10월 23일(목) ~ 25일(토):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열린 바자
- ▶ 1998년 7월 9일(목): 시민대학 수강자를 위한 모음과 나눔의 장
- ▶ 1998년 10월 14일(수) ~ 16일(금):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열린 바자

개역개정판 성경 나왔다

개역개정판 신구약성경이 지난 달 발간되어 이달부터 교회와 시중에 보급되고 있다.

기존 개역성경은 1938년 출간되어 그동안 한글 맞춤법에 따라 2차례에 걸친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개역성경은 나온 지 50여년이 되어 우리 사회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용어도 많아 그동안 성경 번역에 대한 논란도 많았다. 이번에 대한성서공회는 지난 10년간의 기도와 연구를 통해 개역 개정판 성경을 내놓게 됐다. 이 성경 감수에 참여한 바 있는 이종윤 목사는 온 교회 성도들이 하루 속히 개역개정판 성경을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특히 교회에서는 다음달 개최되는 바자 기간 중 성도들에게 특가로 개역개정판 성경을 보급할 계획이다.

외우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4-16장

성경암송대회 11월 개최

서울교회 설립 제 7주년을 기념하는 전교인 성경암송대회가 11월 중에 개최된다. 암송대회 진행은 교회학교별 토너먼트 방식으로 예선을 거쳐 본선, 결선 등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암송 범위는 이미 작년에 제시한 바대로 요한복음 14-16장이며 1996년도 대회의 암송범위였던 요한복음 17장은 심사에는 반영되지 않으나 참가자의 희망에 따라 암송대회 시 함께 외울 수 있다. 이미 준비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부터 마음을 정하고 시작해도 늦지 않을 듯.

임박한 비전2020운동 태신자를 정하고 기도를 시작할 시기



'비전2020 운동'은 서기 2020년까지 우리 국민의 75%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자는 운동이다.

이 운동이 진행되는 50일간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며 아울러 능력과 기쁨으로 감당하기 위해 기도해 힘쓰는 기간이다.

우리 교회는 1991년 교회 창립에 앞서 7주간의 특별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했고, 기도를 시작한 지 50일째 되는 11월 24일에 교회창립예배를 드린 바 있다. 그 후에도 해마다 교회창립기념일 50일 전이 되면 '비전2000 운동'을 선포하고 기도와 전도운동을 전개해 왔다.

올해도 다음 달 4일(주일)에 발대식을 갖고 교회설립일인 11월 22까지 50일간 전도와 기도운동을 펴나갈 예정이다.

다가온 '비전2020 운동' 기간 동안 복음을 증거할 전도대상자(태신자)의 목록을 정하고,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일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이사야 강해

이새의 줄기

이사야 11장 1-5절

기독교 역사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중심이 되시며 역사의 마지막도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장식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앗시리아의 침략이 있을 때에 메시아 예언이 주어집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더 크게 빛나듯 고난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은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1. 이새의 집에서 나리라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로서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메시아가 이새의 집에서 난다는 말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한다는 것과 비천한 신분에서 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연하다는 말은 약하고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사 53:2)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의 메시아를 예언한 가장 중요한 예언서 중의 한 부분이 됩니다. 이와 같이 메시아는 연한 순 같이 아주 유약하고 비천하게 이 세상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가장 연약하면서도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이셨고 가장 약해 보이면서도 생명이 넘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은 참으로 가난하고 비천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비천한 자의 집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비천한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찾을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이며 죄인이 주님의 은총을 힘입을 수 있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2. 오실 메시아는 누구이신가

신구약의 총체적인 주제는 메시아입니다. 구약이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다면 신약은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이며 우리말로 이를 구세주라고 합니다. 또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여호와와 신, 곧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오순절에 오셨습니다만 구약에도 계셨고 예

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시간에도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으셨습니다(눅 4:18).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으셔서 메시아로 인정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으신 분이십니다(요 6:27). 또한 예수님은 성령으로 옷입으셨고(눅 4:4),

마지막으로 오실 예수님은 지식이 있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신 분이십니다.

4. 메시아의 통치방법

예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간을 제일 즐거워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여

"이새의 줄기에서 한씨가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와 실근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피를 삼으리라" (사 11:1-5)



이종운 목사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인도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눅 4:1-2).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바치시는데 이것조차도 성령으로 하셨습니다(히 9:15). 아버지 옷을 입으셨다는 것은 그분의 인품과 신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부활하셨습니다(롬 8:2).

이와 같이 예수님은 태어나시는 시간부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3. 메시아의 속성

먼저 그 분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습니다. 총명은 영어로 Understanding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죄지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모략과 재능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담을 하시는 분, 우리 문제를 해결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일을 해결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략의 신이실 뿐만 아니라 재능의 신이십니다. 재능이란 곧 진능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해결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호와를 경외할 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며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공의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편견을 갖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공의로 판단을 하시며 빈핍한 자와 학대받는 자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변호자가 되십니다.

4절의 그 입의 막대기와 입술의 기운이란 말씀을 의미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마지막에 말씀한 마디로 불법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다섯 달란트를 남기지 않았다고 책망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적은 것을 받았든 많은 것을 받았든 받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정성껏, 성실하게 일했느냐를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정성을 다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주님 자신이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세주, 놀라우신 메시아, 우리 예수님의 뜻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식강좌

한국 교회의 위기와 민족의 미래

■...이 글은 9월 7일(월) 목회자신학세미나 제 2교시에서 손인웅 목사(덕수교회)가 강의한 것을 요약한 것임...■

한국 교회의 위기는 세계의 위기와 아시아의 위기와 연계되어 있다. 또한 한국 교회의 위기는 민족의 위기이며 민족의 미래는 교회의 미래에 달려있다. 성경은 "모든 피조물은 반드시 흔들리게 되고 무너질 때가 있으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다(히12: 26-28).

모든 것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위에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증거함으로(마 16:18). 하나님의 영존하는 나라에 기초하는 교회의 영속성을 강조했다. 그렇지만 2000년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한 사실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

이 글은 세상의 흔들림과 함께 흔들리는 교회의 모습과 그 원인을 분석하면서 교회의 버팀목이 될 만한 사역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1. 세계의 위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혼드시는 목적은 흔들리는 것과 흔들리지 않는 것을 구별해내기 위함이라고 하였는데(히12:26-28), 이 말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 위에서 있는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 나라는 지금 6.25 이후 최대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아시아의 경제적 위기와 한국사회의 총체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문화적 위기이다. 즉 가치관의 타락이 근본원인이다. 한국의 기독교는 싸구려 은혜와 사랑을 외치면서 정의를 소홀히 하였고 믿음만 강조하면서 정직과 합리성을 묵살하여 이에 한 몫을 가하였다. 교회왕국은 건설하면서도 역사에 대한 책임은 외면하였다. 이원론적인 의식구조로 영적 생활만 강조하고 몸을 입고 문화속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다.

2. 교회의 위기

서구교회는 르네상스와 산업혁명 이후 합리주의와 과학기술주의, 사회주의 혁명, 프랑스 시민혁명 등의 세력에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세력의 확장으로 인한 경제 세계주의 운동에 또 한번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우리 나라의 개신교회가 오늘과 같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된 원인은 사회변동에 따른

외적 요인도 있지만 교회의 세상에 대한 적응력의 부족과 내적인 힘의 쇠퇴와 공동체성 약화 때문이라고 본다. 한국 교회의 위기는 16세기 카톨릭교회 부패로 인한 종교개혁 직전과 19세기 말 자본주의 타락과 여기에 편승한 교회의 부패로 인한 공산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과 유사하다.

한국 교회의 취약점은, 첫째로 신학과 교회론이 건실하게 정립하지 않은 점이다.

둘째는 목회자들의 의식문제이다.

셋째는 교회의 분열이다. 한국 교회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되기만 하면 한국 교회의 역량은 극대화 될 것이다. 추락한 교회의 위상과 이미지 쇄신과 선교의 효과를 제고(提高)하고 민족통일과 북한선교를 위해서도 하루 빨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넷째로는 한국 교회가 그동안 사회봉사 분야에 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서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다섯째로는 무인가 신학교 난립과 교역자 자질의 저하, 무분별하고 무계획한 개척교회 난립 등이 교회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이미지를 손상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여섯째는 교회의 공동체성의 약화와 교인들의 극심한 이동성이 교회를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일곱째는 예배가 지루하고 교육기능이 약화됨으로, 교인들의 영성이 황폐해지고 있다.

3. 한국 교회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첫째로 중요한 것은, 목회자의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둘째로 바른 교회신학을 확립하는 작업을 해야만 한다. 교회신학의 근거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교회의 원형과 원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찾아 나가야 한다.

셋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디아코니아 사역(엡 4:11-12)을 교회의 본질적 사역 중에서 중심 사역의 자리에 놓고, 교회와 지역사회와 나라와 창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디아코니아를 우선적으로 실천해야만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상을 향한 선교와 봉사는 그 몸의 본질과 사명이다.

넷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받아서 교회의 모든 조직이 활성화되

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는 교회는 그 본질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모든 평신도들을 일깨워서 선교와 봉사와 교육에 총동원해야 한다. 특별히 여성들의 목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여섯째는 교회는 전인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하는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치유 목회를 해야 한다.

일곱째는 교회는 예배 공동체로서 예전적이면서도 회중 중심의 열린예배를 위해서 끊임없이 예배갱신을 해 나가야 한다.

여덟째는 교회의 자원 개발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교회의 구조를 조정하며, 교회의 모든 역량을 극대화하여, 선교와 봉사로 동원해야 할 것이다.

아홉째는 황폐화해 가는 교회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자연 사랑"을 통한 三愛一致 영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열번째는 경제정의 실현과 생태계 보존과 정치 민주화 등을 위해서 국내 교회의 연합과 세계 교회와의 에큐메니칼 운동을 강화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열한번째는 교회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학적인 메시지를 용기 있게 선포하는 예언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제사장적인 사역을 강화해야 한다.

열두번째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날마다 갱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열세번째는 교회의 지도력은 참여민주주의 방식으로 이끌어가면서, 목회자는 양떼를 뒤에서 몰고 가는 목자와 같이 희생적이고 봉사적인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열네번째는 교회의 목회는 성장 지상주의 보다는 성숙 지향의 목회를 해야만 할 것이다.

열다섯번째는 통일 이후의 민족 교회를 위해서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민족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 사역을 훈련해야 한다.

맺는말

우리 민족의 미래는 한국 교회의 갱신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이제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섬기는 몸으로서의 교회론에 근거해서 성령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사역을 실천하면서, 전인적인 인간 이해로 인간과 사회와 나라와 자연과 세계를 치유하는 교회의 본질적 사역인 디아코니아 사역을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제 83차 총회 소망교회당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제83차 총회가 이번 주 22일(화)부터 25일(금)까지 서울 소망교회당에서 열린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종윤 목사를 비롯 박철훈, 오정수 두 분 장로가 총대로 참여하게 된다. 이 기간동안 한국 교회의 많은 일들이 처리되므로 은혜로운 총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가 요망된다.

당회원 산상기도회

당회원들은 18일(금) 경기도 양평에서 피택 장로들과 더불어 교회를 위한 철야기도회를 가졌다.

이번 기도회에서는 다섯 개 팀으로 나누어 조별기도를 드렸고, 중보기도로 서로 기도제목을 나누었다. 또 전체 기도과 개인 기도 시

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기도회는 교회당 건축 입찰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간구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고 피택 장로들의 영성 함양에도 비중을 두었다.

청년부 철야기도회

청년부(부장 노문환 장로)는 18일(금) 정치는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청계산 기도원에서 나라와 교회 그리고 청년회 부흥을 위한 기도회를 가졌다.

성찬용포도즙 담그다

교회는 17일(목) 성찬식에 사용할 포도즙을 담갔다. 우선자 권사(홍길호 장로)와 이영희 집사(오정수 장로)가 포도 30상자를 기증했으며, 많은 권사와 집사들이 이날 남치는 기쁨으로 포도즙 담그는 일에 참여했다.

순례자 컬럼

가치 추구의 삶

인간의 삶이란 그것이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어떤 값있는 것을, 그리고 의미있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가치추구의 생활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어떤 이는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일생을 투자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사회적 도덕적 또는 종교적 가치를 찾아 헤매이기도 한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고귀한 가치를 갖고 있으면서 멀리서 무엇을 얻으려고 허덕일 때가 많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가 그것이고 건강과 지식과 젊음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 아닐까.

가정과 친구도 가치라면 가장 고귀한 것이겠지만 그보다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믿음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 선이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같은 보화를 보화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즉시 얻을 수 있도록 결단을 재촉하는 일이다.

보화를 얻으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자기희생이 전제되어야 하듯 옛 사람의 편견과 죄로 오염된 책략과 수고를 버리고 영원에 이르는 큰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자.

◆ 동정 ◆

◇ 오늘 점심식사는 이덕빈 집사·한금희 권사 가정에서, 간식은 홍정호 장로·우선자 권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열린 바자

지금까지 접수된 것(9월 19일 현재)

접수번호	출품내역	기증자(교구)
1	기간(9.14. - 10.17.)내에 판매되는 LG가전제품 및 컴퓨터 판매액 전액, 의류 25상자	오정수(1)
2	기간(9.14. - 10.17.)내에 판매되는 한솔복사용지 판매액 전액	박두호(7)
3	기간(9.14. - 10.17.)내에 소송의뢰된 변호사 수입료 전액	김상철(3)
4	바자 기간(10.14. - 16.)내에 판매된 화장품 전액	신용식(10)
5	10월 13일 만나식당 판매액 전액(당일 자원봉사자 환영)	이찬호(3)
6	교회 서적보급소에서 판매되는 서적 대금 전액(개역성경포함)	이종윤(1)
7	일금 300만원	한남CBMC
8	사파이어 목걸이 세트 외 7점	김동연(6)

■ 제 14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

- ③ 9월 21일 - 제 1교시 / 느헤미야서 연구(이종윤 목사)
· 제 2교시 / 신앙의 위기와 21세기 교회(김영한 교수)
- ② 9월 28일 - 제 1교시 / 느헤미야서 연구(이종윤 목사)
· 제 2교시 / 도덕적 위기와 국가의 위기(연세대)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Y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 "찬양의 시간" 이 매주일 오후 4시부터 50분간 1층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 1. 제 14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를 위해
- 2. 제 4학기 서울성경대학을 위해
- 3.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바자를 위해
-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